영어어문교육 *제22권* 4호 2016년 겨울

교양영어 TOEIC 수업에서 수준별 학습자의 토익에 대한 인식과 태도

남 은 희
(한경대학교)

Nam, Eun-hee (2016). Analysi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towards TOEIC and their TOEIC scor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2*(4), 225-248.

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s used as an important criterion to meet graduation requirements, and to get into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major companies these days. Under the circumstances, Korean universities need to help their students improve their TOEIC scores. As part of these efforts, this study was designed to find out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towards TOEIC, and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ose and their TOEIC score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 set of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the data. The research was implemented for 16 weeks with 99 university students. These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TOEIC scores: one group with the TOEIC scores above 500 and the other with the scores below 500.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 differences in four categories between the two groups; perceptions of TOEIC, interests in TOEIC, self assessment of TOEIC, and strategies for TOEIC. However,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in two categories between these groups; perceptions of TOEIC score and their efforts to improve their TOEIC scor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University TOEIC classes.

[TOEIC/Perceptions of TOEIC/Attitudes towards TOEIC/TOEIC Class, 토익/토익에 대한 인식/토익에 대한 태도/토익 수업]

I. 서론

한국사회에서 토익(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에 대한 열풍은 대단하다. 연간 평균 200만 명 이상이 800억 원 넘는 돈을 들여 토익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이다(김경필, 2016). 이는 토익이 대학 입시에서부터 대학 졸업과 각종 입사 시험 등 개인이 사회·경제적으로 성공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요한 길목에서 당락을 가르는 잣대로 쓰여지는 때문일 것이다. 실제, 지난해 2015년 상반기 채용을 진행한 국내 주요 민간기업 139곳 중 103곳, 공기업·공공기관 121곳 중 84곳이 토익 점수를 채용에 활용하고 있으며 대학들도 2014년 기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202개 대학 중 99개 대학이 졸업 요건으로 토익 점수를 요구하고 있어 이로 인해 한국의 인구 대비 토익 응시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천효정, 2016). 그러나 토익은 원래 1979년 미국 평가기관인 ETS(Education Testing Service)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국가에서 일상 생활이나 비즈니스 업무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개발한 표준화된 평가시험(Standardized Test)이다. 이러한 토익이 1982년 국내에 처음 도입 된 후 35년을 지나면서 영어교육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토익이 제도권 시험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되자 학생들은 제도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토익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되었고(신동일과 김주연, 2012), 학생과 대학 모두에게 필요와 요구를 맞추어야 하는 과제가 된 것이다.

대학이 토익 점수를 졸업자격과 연계시켜 일정 수준 토익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는 취업과 연계된 대학평가지표로 인해 취업률이라는 목전의 목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대학의 현실적 상황의 반영이기도 하다. 취업률은 재학생 충원률 25%에 이어 전문대학의 경우 20%, 4년제 대학은 15%를 차지하여 대학평가지표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항목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때문에 대학이 취업 영어에만 집중하는 것이 대학 교양교육의 보편적 목적에 부합하는가 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들이 교양영어에서 토익 과목을 개설하고, 증설하고 있다. 또한 각종 특강과 방학 중의 토익 캠프 뿐만 아니라, 일부 대학은 기존의 영어 과목들을 폐지하고 토익 만을 유일한 교양영어 과목으로 하는 교과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이처럼 토익이 대학 교양영어의 중요한 과목으로 자리하였지만, 토익 점수와 실제 영어 능력에 대한 논란은 있다. 토익이 진정으로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신뢰할 만한 검증 방법인가, 토익 준비 대한 학생들의 노력이 실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지순정과 이상도(2009)는 토익 성적이 영어 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토익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도 많은 경우 실무 현장에서 필요한 영어를 적절히 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토익이 테스트 테이킹 기술(test-taking skills)만으로도 고득점을 올릴 수 있어 영어 학원에서 영어 실력이 아닌 토익 비법을 전수하는 데 급급 한다(정경화, 2016)라는 비판과 토익 성적과 영어 실력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부정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 토익이 평가 척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대체할 평가 방법도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토익 수업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행(2010)은 평가가 측정 도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거슬러 수험자의 학습 내용과 방법에 영향을 주는 역류 효과(Washback effect)를 언급하면서 토익에 관한 연구에서의 역류 효과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수험자로서 학생들이 실제 토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토익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토익 수업과 학습이 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다. 보다 상세한 결과를 위해 수준이나, 능력, 학습자의 필요에 부합하기 위한 수업으로 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달리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강조한 Brown(2001)의 주장을 반영하여 점수에 따라 토익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토익 점수에 따른 대학생들의 토익 시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토익 점수에 따른 대학생들의 토익과 영어능력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3) 토익 점수에 따른 대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가?
4) 토익 점수에 따른 대학생들의 토익 학습에 대한 자기평가는 어떠한가?
5) 토익 점수에 따른 대학생들의 토익 학습에 대한 전략은 어떠한가?
6) 토익 점수에 따른 대학생들의 토익 능력 향상을 위한 태도는 어떠한가?

Ⅱ. 선행 연구

토익이 대학생들의 졸업과 취업에 연계되면서 토익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증가하고, 이에 부합하고자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토익 수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반영되고 있다. 근래 들어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토익 수업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구의 주제가 토익에 대한 인식이든, 방법론이든 프로그램이나 교재에 관한 것이든 세부적 결과 분석은 학생들의 토익 성적에 따른 수준별 적용이라는 측면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광인과 오치성(2012)은 대학 필수과목으로서 토익 수업이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토익 수업에 대한 실효성과 그 효과를 증대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로 토익 수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청해에 집중한 수업을 할 필요가 있으며, 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준별 분반수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권선희(2012)도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에 대해 학생 2/3정도가 찬성하였으며, 수준별 수업에 대한 논의와 준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박지영, 오준일과 이인규(2012)는 대학의 수준별 토익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와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효율적인 대학 수준별 토익 수업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 측의 행정적 운용 및

재정상 지원의 활성화, 학습자들의 수준별 토익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교수의 적절한 분반 별 수업목표 및 교수방법 설정, 마지막으로 수준별 수업에 맞는 교재 및 학습자료 개발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박현숙과 최미옥(2014)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캠프를 실시한 뒤, 단기간일지라도 집중적인 수업이 학생들의 토익 점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영어 수준에 따라 영역별로 다양한 교수방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이인규(2014)는 TOEIC을 대학 정책 또는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반드시 학습자들이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준별 수업의 실행이 논의만 될 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대학의 TOEIC 수준별 수업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수준별 수업의 효과가 초·중·고급반 등 집단 수준에 따라 학업의 성취도에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수준별 수업이 비 수준별 수업보다 학업의 성취도에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었으며,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 후 초·중·고급반에서 모두 사후 점수가 사전보다 향상되었다고 말하면서 수준별 수업 실시에 대한 방안모색을 강조하였다.

토익 수업에 대한 방법적 논의와 전략 연구도 이어진다. 정행(2010)은 토익이 학생들의 학습 방법 및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고, 어휘학습에 있어서는 철자로 쓰며 익히는 것 보다 듣고 말하며 소리로 익히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토익 유형에 친숙할수록 개정된 토익 유형에 일치한 학습 방법과 전략을 더 많이 활용하였다고 말한다. 김혜경(201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실 수업 외에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한 스터디 그룹 활동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의 독해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스터디 그룹 활동이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토익 독해 교수-학습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Lee(2015)는 토익 교재에 수록 되어 있는 어휘 학습에 있어 영어 능력에 따른 교수 학습의 방법을 연구, 제안하였다. 그녀는 영어 능력이 보다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깊이 있는 어휘 학습이 영향을 더 미치므로 교수자는 학생 자신들의 문장을 만들거나 메모 등을 활용하는 깊이 있는 학습법을 권하였으며, 초보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다양한 문맥을 접하도록 하고 어휘의 의미나 사용 등을 익히도록 사전 활용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토익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나 성향, 태도에 관한 연구도 다양하다. 지순정(2011)은 토익에 대한 학습자들의 태도를 영어에 대한 선호도, 토익 공부의 목적, 토익 공부의 하루 학습량, 토익 점수의향상에 대한 기대, 청해와 독해의 문제점등을 알아 보았다. 성창섭(2012)은 한국 대학생들이 토익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는 한국 대학생들은 토익을 영어 능력 검증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졸업 후 취직을 위한 수단이나 학교와 사회에서 토익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토익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영어 학습자들의 토익 시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신동일과 김주연(2012)은 비판적 언어평가론 관점에서 토익 수험자의 토익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11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토익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과 반응을 종합한 결과, 토익은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수험자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졸업과 입사를 위해 도입된 토익의 효과가 실제 수험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정치사회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면서 시험에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토익에 대한 사회적·윤리적·교육적 유의미성을 다시 논의해야 할 때임을 경고하였다. 유사하게, 이동명, 홍광희와 황규홍(2013)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토익을 단순히 자신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영어 시험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사회나 기업에서의 요구로 토익을 공부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들은 학습 대상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반응 하는지를 알고 수업 준비와 자료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인 학습·개발이 용이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방법활용에 있어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토익 수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송은혜(2013)는 스마트폰 앱이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 그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 폰 토익 앱을 이용한 토익 학습에 긍정적이며, 토익 학습에도 도움될 수 있으나, 스마트 폰 상의 영어학습에 유용한 앱의 목록과 학습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전은실과 홍진주(2014)는 대학 교양 영어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토익 과목의 효과를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측정해 보았다. 그들은 모의토익 시험 점수는 어느 정도 향상되었고, 학생들도 과목 자체에 대하여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학 교양 영어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명관(2015)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효과를 토익 수업과 연계하여 알아보았다. 그녀는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토익 수업을 실시 한 뒤,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영어수업이 언어능력수준이 낮은 학생들보다 높은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이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중, 자기이해요소가 높은 학생일수록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수업에 더 긍정적이라면서 학습자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 밖의 연구 주제로는, 자기효능감과 토익 성취도간의 관계에 관한 정병삼(2011)과 오희정(2012)의 연구를 볼 수 있다. 정병삼(2011)은 2년간의 종단적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토익 점수가 선형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영어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이 토익점수 변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혀내었다. 오희정(2012)은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토익 성취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 우리나라 영어교육에서도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자기효능성

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Byun 과 Kim(2015)은 토익 문항들이 실제 수험자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는가를 알아 보고자 토익 교재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기존의 토익 교재가 문법 해석, 형태 중심, 아니면 교수자 중심의 다지 선다형 문제들임을 발견하고,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신문 잡지, 방송 보도 물 등을 포함시킬 것을 권하였다. 또한 학습자 중심, 과제 중심의 수업이 되어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 임할 수 있는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최근 들어 토익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 하게 실행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이들은 토익을 교양 선택 과목으로 수강 신청한 학생들로 수강 가능 대상은 1학년에서 4학년 전 학년이다. 학생들은 학기 초에 토익 500점 미만의 반과 토익 500점 이상의 반으로 나뉘어 신청토록 되는 강좌에서 본인의 토익 성적에 따라 택하였으며, 수강 신청 결과, 500점 미만의 반은 1 강좌, 500점 이상은 2 강좌가 개설되었다.

토익의 성적 별 인식과 태도를 알아 보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 대상의 구분은 수강 신청 시 제시되어 있는 조건인 토익 점수 500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대표성을 위해 500점 이상의 반은 A 집단, 500점 미만의 반은 B 집단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수강 신청 시 두 강좌가 개설된 500점 이상은 반은 합하여 67명, 500점 미만 반은 37명이 신청하였으며, 이들은 학기 중간 수강 취소 없이 104명 모두가 토익 수업을 들었다. 그러나 설문지 회수 후 통계산출 시, 앞면만 응답하거나 전체 문항을 동일한 번호로 반복하여 답을 기술한 5명의 학생은 연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실제 연구 대상은 토익 점수 500점 이상인 65명(65.7%)과 500점 미만의 34(34.3%)명으로 모두 99명이다. 이들을 성별과 학년으로 구분하여 보면, 남학생이 45명(45.5%), 여학생 54명(54.5%)이며, 1학년은 16명(16.2%), 2학년은 21명(21.2%), 3학년 역시 21명(21.2%)이었다. 그 외 4학년이 41명(41.4%)으로 가장 많았다.

2. 연구 기간

본 연구는 2015년 9월 첫 주부터 12월 3째 주까지로 한 학기 16주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의 환경이 되는 토익 수업은 교양 선택과목으로서 3학점이며,

수업은 한 주에 이틀로 나뉘어 90분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설문은 학기가 끝나는 16주차에 학기말 시험 고사 기간에 시행되었다. 설문지는 기말고사 당일, 학기 말 고사 후 시행되었으며 20분이 지난 뒤 회수하였다.

3. 연구 도구

1)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지 상단에는 박스 안에는 토익 수업을 신청한 학생의 배경을 파악하고자 기초문항을 제시하였으며, 그 아래 토익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기초 문항은 학생들의 개인적 배경과 토익과 관련한 배경을 묻는 6개 문항이며, 1, 2, 3번은 기술형, 4, 5, 6번은 객관식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준비한 문항들은 그 하단에 제시하였으며, 여기에는 토익에 대한 인식, 토익과 영어 능력에 대한 인식, 토익에 대한 관심, 그리고 토익 학습에 대한 자기평가, 토익 학습에 대한 전략, 마지막으로 토익 점수에 향상을 위한 태도를 묻는 6개의 항목, 30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의 표 1은 대학생들의 교양 영어 수업으로서의 토익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설문지 구성

항목	문항번호	문항 수
기초 설문	1, 2, 3, 4, 5, 6	6
합		6
토익 시험에 대한 인식	1, 2, 3, 4, 5	5
토익과 영어 능력에 대한 인식	6, 7, 8, 9, 10	5
토익에 대한 관심	11, 12, 13, 14, 15	5
토익 학습에 대한 자기평가	16, 17, 18, 19, 20	5
토익 학습에 대한 전략	21, 22, 23, 24, 25	5
토익 능력 향상을 위한 태도	26, 27, 28, 29, 30	5
합		30

2)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학 교양영어 토익 수업에서 토익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한 설문지가 연구 도구로서 믿을 만 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은 크론바흐 계수(Ch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30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830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측에서 0.7값을 넘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측정도구로서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신뢰계수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2
대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설문지 신뢰도

문항 수	M	SD	Chronbach's Alpha
30	3.434	.894	.830

Ⅳ. 결과 및 논의

1. 토익 배경 분석

대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 보기 전, 교양영어 과목으로 토익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토익과 관련한 배경을 먼저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으며, 표에서의 집단 A는 토익 점수 500점 이상을 나타낸다. 집단 B는 토익 점수 500점 미만이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 기술 전체에 적용된다.

표 3
토익 배경 결과

문항	집단	빈도 (%) ①	②	③	④	⑤	M	SD	*t*	*p*
(4) 토익 경험	A	21.5	18.5	20.0	10.8	29.2	3.077	1.534	2.163	.033*
	B	26.5	35.3	20.6	5.9	11.8	2.412	1.282		
(5) 토익 시작	A	0.0	4.6	7.7	12.3	75.4	1.415	0.827	3.617	.001*
	B	0.0	0.0	0.0	2.9	97.1	1.029	0.172		
(6) 학습 시간	A	21.5	24.6	33.8	7.7	12.3	2.646	1.255	2.256	.026*
	B	44.1	23.5	17.6	11.8	2.9	2.059	1.179		

* 문항(5)는 역순으로 분석되었다.

*p<.05

위의 표에서 보 듯, 세 문항 모두에서 토익 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토익 경험(p=.033), 즉 지금까지 토익 시험을 치룬 횟수에 차이가

있으며, 토익을 시작한 시기(p=.001), 그리고 토익을 공부하는 시간(p=.026)도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토익 시험을 치룬 횟수를 묻는 토익 경험에서 토익 500점 이상인 A 집단의 경우, 5회 이상이 29.2%로 가장 많았고, 4회가 10.8%, 3회가 20%로 3회 이상이 60% 이상이었으나, 500점 미만 반의 경우는 1회가 26.5%, 2회가 35.3%로 1, 2차례에 그친 학생들이 60%이상으로 성적이 높은 집단이 토익을 치른 경험이 많았다. 토익 학습 시작의 시기를 묻는 문항에서는 500점 이상 반은 중학교 입학 후(4.4%)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여 대학교 입학 후에는 75.4%가 되나, 500점 미만의 반은 고등학교 입학 후(2.9%)에 시작하여 거의 모든 학생들(97.1%)이 대학교에 와서야 토익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문항에서는 본 토익 수업 이외 주당 토익 학습 시간을 물어 보았다. 이에, 500점 이상 반은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3시간 이상도 12.3%를 차지 하였으나, 500점 미만의 반에서는 하지 않는다가 44.1%, 1시간 미만이 23.5%로 전혀 하지 않거나 1시간 미만이 2/3로 대다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토익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토익을 준비한 시기가 빠르며, 학교 토익 수업 외에 개별적인 학습 시간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토익 시작 시기와 토익의 학습 시간, 그리고 토익 성적간의 비례관계를 볼 수 있다.

2. 토익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항목별 차이

대학생들의 토익 점수 차이에 따른 토익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6개의 상위 항목을 두고 항목별 하위 5개의 문항을 두어 보다 구체적인 인식과 태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먼저 상위 6개 항목에 대해 집단간 차이가 있는 가를 보았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토익 점수 별 토익에 대한 인식과 태도 차이

항목	집단	N	M	SD	t	p
토익 시험에 대한 인식	A	65	3.323	.424	3.362	.001*
	B	34	2.982	.570		
토익과 영어 능력에 대한 인식	A	65	3.508	.457	.400	.690
	B	34	3.571	.614		
토익에 대한 관심	A	65	3.446	.513	3.399	.001*
	B	34	3.029	.690		
토익 학습에 대한 자기평가	A	65	3.732	.553	-3.625	.000*
	B	34	4.123	.415		

토익에 대한 전략	A	65	3.350	.566	2.056	.042*
	B	34	3.082	.705		
토익 능력 향상을 위한 태도	A	65	3.596	.653	.912	.364
	B	34	3.459	.813		

*p<.05

위 표에서 보듯, 토익에 대한 인식 중 4개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항목은 토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로서 이는 토익을 공부하는 목표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토익 시험에 대한 인식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p=.001), 500점 이상의 A 집단 평균은 3.323, 500점 미만 B 집단의 평균은 2.982로 나타났다. 성적이 높을수록 토익을 공부하는 목표 인식이 명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 토익에 대한 관심(p=.001), 토익과 자신의 영어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p=.000) 에서 성적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를 평균 값으로 분석해 보면, 토익에 대한 관심은 500점 이상의 학생들(M=3.446)이 500점 미만의 학생들(M=3.029)보다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토익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서는 A 집단의 평균은 3.732, B 집단의 평균은 4.123으로 나타나 점수가 낮을수록 스스로에게 토익 관련 학습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토익에 대한 전략 유무(p=.042)도 토익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토익 수험자로서 자신만의 전략이 있는가에 대해서 A 집단은 평균 3.350, B 집단은 평균 3.082로서 토익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토익 시험에 대해 전략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토익과 영어능력에 대한 인식(p=.690)과 토익 능력에 향상을 위한 태도(p=.364)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점수에 상관 없이 학생들은 토익 학습이 영어 능력을 향상시킨다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었으며(A 집단 M=3.508, B 집단 M=3.571), 토익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태도도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A 집단 M=3.596, B 집단 M=3.459).

3. 토익에 대한 인식과 태도 문항별 분석

1) 토익 시험에 대한 인식

토익 점수에 따라 토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5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그 중, 3개의 문항에서 토익 점수 500점 미만과 500점 이상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토익 시험에 대한 인식 결과

문항 번호	집단	빈도 (%)					M	SD	*t*	*p*
		①	②	③	④	⑤				
1	A	1.5	16.9	26.2	40.0	15.4	3.508	1.002	.674	.502
	B	8.8	17.6	20.6	35.3	17.6	3.353	1.223		
2	A	29.2	40.0	29.2	1.5	0.0	2.030	.810	-5.973	.000*
	B	5.9	26.5	20.6	32.4	14.7	3.235	1.182		
3	A	1.5	6.2	23.1	47.7	21.5	3.815	.900	-.767	.445
	B	2.9	8.8	11.8	41.2	35.3	3.971	1.058		
4	A	1.5	6.2	18.5	50.8	23.1	3.877	.893	7.078	.000*
	B	14.7	41.2	32.4	5.9	5.9	2.471	1.022		
5	A	0.0	20.0	30.8	40.0	9.2	3.385	.913	8.546	.000*
	B	26.5	58.8	14.7	0.0	0.0	1.882	.640		

*p<.05

토익 시험에 대한 인식에서는 2번과 4번 5번 문항에서 성적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2번 문항은 '토익을 공부하는 목적은 졸업(인증제)을 위한 것이다' 였으며, 이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질문에서 500점 이상의 학생들은 평균이 2.030으로 낮았던 반면에 500점 이하의 학생들은 3.235로 평균 점수가 1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500점 미만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토익 점수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졸업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증제 통과가 토익 수업 수강의 최대 목적 중 하나임을 알게 한다. 4번 문항은 '토익을 공부하는 목적은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라는 질문이었다. 500점 미만의 학생들은 평균이 2.471, 500점 이상의 학생들의 평균은 3.877으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p=.000)를 보였다. 여기에서 토익 중·상위 학생들은 실제 자신들의 영어 능력을 보다 더 향상 시키기 위해 교양영어로서 통과 과목을 수강하는 가 하면, 토익 하위권 학생들은 성적 보다는 통과해야 하는 졸업인증제가 더 큰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토익을 공부하는 목적은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라는 문항에서 두 집단간 차이(p=.000)를 발견할 수 있다. 토익 500점 미만 집단의 경우는 평균 점수가 1.882로 매우 낮았던 반면, 500점 이상의 학생들은 3.385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토익 500점 미만의 학생들 보다는 어느 정도 토익의 기본이 되어 있는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토익 학습을 실제 자신이 사용 할 수 있는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시간으로 삼고 있음을 나타낸 결과로 토익 점수에 따라 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1번 문항과, 3번 문항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문항 1은 '토익은 나의 미래에 중요하다'라고 제시하여 토익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500점 이상인 A 집단의 경우는 평균 3.508, 500점 미만인 B 집단의 평균은 3.353으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p=.502) 3.5안팎의 평균 점수로 학생들은 대체로 토익을 자신들의 미래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토익을 공부하는 것은 취업을 위한 것이다'라고 제시하여 토익 학습의 목표를 취업과 연결시켜 제시하였다. 이 3번 문항에서는 500점 이상의 학생들(M=3,815)과 500점 이하의 학생들(M=3.971)의 평균 점수가 유사하여 집단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8에서 4에 가까운 비교적 높은 평균 수치를 감안할 때 학생들은 점수에 상관 없이 토익을 공부하는 것은 취업을 위한 것 임을 볼 수 있다.

2) 토익과 영어능력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토익 공부가 실제 자신들의 영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토익과 영어 능력에 대한 인식 결과

문항 번호	집단	빈도 (%)					M	SD	t	p
		①	②	③	④	⑤				
6	A	1.5	4.6	35.4	49.2	9.2	3.600	.787	.223	.824
	B	5.9	5.9	29.4	44.1	14.7	3.559	1.021		
7	A	1.5	4.6	21.5	61.5	10.8	3.753	.771	1.113	.268
	B	2.9	8.8	29.4	47.1	11.8	3.559	.927		
8	A	0.0	1.5	13.8	66.2	18.5	4.015	.625	-.552	.582
	B	0.0	0.0	14.7	61.8	23.5	4.089	.621		
9	A	0.0	1.5	12.3	67.7	18.5	4.031	.612	.232	.817
	B	0.0	0.0	20.6	55.8	20.6	4.000	.651		
10	A	12.3	41.5	26.2	18.5	1.5	2.554	.985	.118	.906
	B	11.8	41.2	32.4	11.8	2.9	2.529	.961		

*p<.05

이전의 표 4에서 보았듯, 토익 시험과 영어능력에 대해 지니는 인식에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p=.690). 이러한 결과는 세부 문항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나 10번 문항을 모든

문항에서 평균 점수는 3.5이상 4.0을 상회하여 점수에 상관 없이 학생들은 토익이 영어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인식을 나타내었다. 문항 별로 보면, '토익 학습은 영어듣기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6번 문항에는 500점 이상의 집단 A는 평균 3.600, 500점 미만의 집단 B는 평균 3.559로 근사한 평균 값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없었다(p=.824). '토익 학습은 영어읽기 능력을 향상 시키는가'를 알아 본 6번 문항에서는 500점 이상 학생들의 평균은 3.753, 500점 미만의 학생들은 평균 3.559로 역시 점수 별로 영어 읽기 능력 향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268). 7번 문항은 토익 학습은 어휘 능력을 향상시킨다 라고 제시하여 토익을 준비하는 수험자로서 토익 준비가 어휘능력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4이상의 높은 평균 수치(500점 이상의 집단의 경우, M=4.015, 500점 미만의 집단은 M=4.089)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p=.582).

다음으로 '토익 학습은 영어문법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문항에서 두 집단 모두 4이상의 평균(500점 이상의 집단의 경우, M=4.031, 500점 미만의 집단은 M=4.000)을 보였으며,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p=.817). 이상의 결과에서 듣기와 읽기는 3.5이상의 평균 점수로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특히 토익 학습은 어휘와 영문법 능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인식을 알 수 있다. 반면, '토익 점수가 나의 실제 영어실력이라 생각한다'라는 10번 문항에는 성적에 상관없이 두 집단 모두, 2.5 정도의 낮은 결과(500점 이상의 집단; M=2.554, 500점 미만의 집단; M=2.529)를 나타냈다. 이는 토익이 영어능력을 향상시킨다 라고 인식하고는 있지만, 토익 시험의 결과인 그 성적은 나의 실제 영어 능력은 아니다 라고 답하고 있어 실제 그들이 생각하는 영어 능력이 토익 점수로 반영되도록 하는 과제를 주었다.

3) 토익에 대한 관심

점수에 따라 토익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가를 문항 별로 알아보았다. 앞서 표 4에서 토익에 대한 관심이 집단 간 차이(p=.001)가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5개의 문항을 집단 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토익에 대한 관심을 묻는 문항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던 만큼 실제 세부 질문에서도 4 가지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나는 토익에 관심이 많다'라는 11번 문항에서 500점 이상의 중·상위 집단은 평균 3.400, 500점 미만의 집단은 평균 2.971으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p=.040). 따라서 성적이 높을수록 토익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나는 토익 학습은 재미가 있다'라는 12번 문항에서도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9). 이러한 결과는 토익 점수에 따라 토익을 공부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평균 수치를 보면 500점 미만의 B 집단은 평균 2.441, 500점 이상의 A

집단도 3.046의 평균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토익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나는 토익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p=.032)와 '토익은 교양영어 프로그램에서 필수 과목이어야 한다'(p=.012)라는 질문에도 토익 성적이 높은 집단이 토익 점수가 낮은 집단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면서 성적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토익 점수가 낮으면 토익 수업에 비 적극적이며(A 집단의 평균은 3.585, B 집단의 평균은 3.206), 토익이 교양 영어의 필수 과목으로 되어야 한다는 질문에도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성적이 높은 학생들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A 집단의 평균은 3.353, B 집단의 평균은 2.824).

표 7
토익에 대한 관심 결과

문항 번호	집단	빈도 (%)					M	SD	t	p
		①	②	③	④	⑤				
11	A	1.5	15.4	33.8	40.0	9.2	3.400	.915	2.077	.040*
	B	8.8	26.5	29.4	29.4	5.9	2.971	1.087		
12	A	6.2	24.6	33.8	29.2	6.2	3.046	1.022	2.669	.009*
	B	26.5	26.5	26.5	17.6	2.9	2.441	1.160		
13	A	1.5	6.2	33.8	49.2	9.2	3.585	.808	2.180	.032*
	B	2.9	11.8	52.9	26.5	5.9	3.206	.845		
14	A	1.5	12.3	41.5	38.5	6.2	3.353	.837	2.548	.012*
	B	14.7	32.4	14.7	32.4	5.9	2.824	1.218		
15	A	0.0	3.1	21.5	63.1	12.3	3.846	.667	.928	.356
	B	0.0	8.8	23.5	55.9	11.8	3.706	.799		

*p<.05

한편 다른 4개의 문항과는 달리 '나는 나의 토익 성적이 어느 수준인가를 유념하고 있다'라는 15번 문항에는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p=.356). 그러나 이는 성적에 상관 없이 자신들의 토익 점수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있는 것으로, 토익 점수를 500점 이상의 집단(M=3.846)과 500점 미만의 집단(M=3.706), 모두에서 토익 관심에 대한 항목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4) 토익 학습에 대한 자기평가

토익 수험자로서의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를 알아보았다. 토익 학습에 대한 자기평가 전체 항목에서는 500점 이상의 집단 A와 500점 미만의 집단 B간에 유의한 차이(p=.000)를 보였으며 항목을 세분하여

문항 별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토익 학습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

문항 번호	집단	빈도 (%)					M	SD	*t*	*p*
		①	②	③	④	⑤				
16	A	1.5	13.8	20.0	41.5	23.1	3.708	1.027	-3.820	.000*
	B	0.0	0.0	5.9	44.1	50.0	4.441	.613		
17	A	0.0	6.2	7.7	52.3	33.8	4.139	.808	-2.099	.038*
	B	0.0	0.0	5.9	41.2	52.9	4.471	.613		
18	A	1.5	3.1	12.3	43.1	40.0	4.170	.876	-2.350	.021*
	B	0.0	0.0	2.9	38.2	58.8	4.559	.561		
19	A	1.5	4.6	12.3	47.7	33.8	4.077	.889	-1.768	.080
	B	0.0	0.0	8.8	44.1	47.1	4.382	.652		
20	A	12.3	33.8	41.5	9.2	3.1	2.570	.935	-.788	.433
	B	3.0	48.5	24.2	21.2	3.0	2.727	.944		

*p<.05

위의 표 8에서 보듯, 듣기 학습의 필요성을 알아 본 16번 문항(p=.000), 읽기 학습의 필요성을 알아 본 17번 문항(p=.038), 그리고 토익 관련 어휘 학습의 필요성을 알아 본 18번 문항(p=.021) 등 세 문항 모두에서 성적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나는 '토익 듣기 학습에 보다 집중하여야 한다'에서는 토익 500점 이하의 반에서 평균 4.441, 500점 이상에서 3.708으로 점수가 낮은 학생일수록 듣기 학습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는 토익 읽기 학습에 보다 집중하여야 한다'에서도 집단 간 차이는 있었다. 두 집단 모두 토익 읽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토익 500점 이상의 반에서 평균 4.139, 500점 이하의 반에서 평균 4.471으로 특히 500점 이하의 집단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토익 읽기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음을 있다. 토익 관련 어휘 학습에 있어서도 성적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토익 관련 어휘 학습에 보다 집중하여야 한다'라는 질문에는 토익 500점 이상의 학생들인 A집단은 4.170의 평균 수치를 보인 반면에, 토익 점수가 보다 낮은 B 집단에서 평균 4.559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38). 다만, 4.2에서 4.5 이상의 높은 평균으로 볼 때, 학생들은 성적에 상관 없이 어휘 학습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점수가 낮은 집단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토익 어휘 학습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9번째인 '나는 토익 관련 문법학습에 보다 집중하여야 한다'라는 문항에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80). 그러나 이 문항의 평균치를 보면 4에서 4.4정도로 높아 토익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토익 관련 문법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토익 성적 500점 이상(M=4.077)의 학생들 보다 500점 미만의 학생들(M=4.382)이 문법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평가 항목의 마지막 문항으로, '토익 시험을 위한 영어 학습은 일반 영어 학습과 비교하여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제시한 20번 문항도 두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433). 이 문항의 평균을 보면, 토익 점수가 낮은 집단에서나(M=2.727) 높은 집단 에서나(M=2.570) 모두 2.5에서 2.7사이로, 토익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성적에 상관 없이 토익의 학습 효과는 단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5) 토익에 대한 전략

토익을 학습하는 학생들이 토익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는 데에 있어 전략적으로 임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았다. 이에 점수에 따른 집단 간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p=.042), 문항 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토익 학습에 대한 전략 결과

문항 번호	집단	빈도 (%)					M	SD	t	p
		①	②	③	④	⑤				
21	A	0.0	4.6	12.3	67.7	15.4	3.939	.682	1.510	.137
	B	5.9	5.9	20.6	52.9	14.7	3.647	1.011		
22	A	3.1	15.4	26.2	46.2	9.2	3.431	.968	-.961	.339
	B	2.9	2.9	32.4	52.9	8.8	3.618	.817		
23	A	0.0	24.6	32.3	40.0	3.1	3.215	.857	2.040	.044*
	B	8.8	29.4	35.3	23.5	2.9	2.834	.999		
24	A	1.5	20.0	26.2	47.7	4.6	3.339	.906	3.747	.000*
	B	14.7	32.4	35.3	14.7	2.9	2.588	1.019		
25	A	9.2	36.9	16.9	35.4	1.5	2.831	1.069	.406	.686
	B	17.6	29.4	17.6	32.4	2.9	2,735	1.189		

*p<.05

우선, '나는 토익 시험에서 나의 약점을 알고 있다'라는 21번째 문항에서는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p=.137). 응답의 결과를 평균 치로 해석해 보면, 토익 점수 500점 이상의 A 집단은 3.939, 500점 미만의 B 집단도 3.647로 비교적 높았다. 이는 토익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성적 500점 이상이나 500점 미만이 거나에 상관 없이 토익 시험에서의 자신의 약점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은 '토익 영어 학습은 일반영어의 학습 방법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에 대해 두 집단의 평균을 보면 500점 이상의 집단에서3.431,500점 미만의 집단에서는 3.618로 토익 성적이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보다 평균에서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p=.339). 23번 문항은 '나는 토익 시험 시, 문제를 푸는 나만의 방식(전략)이 있다'라는 것이었다. 이 문항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44). 500점 이상의 학생들의 평균은 3.215이었던 반면에 500점 이하의 학생들은 2.834로 낮았다. 이는 토익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토익 점수가 낮은 학생들에 비해 토익 수험자로서 보다 전략적임을 보여 준다 하겠다.

그 다음으로 '나는 토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터넷, 단어장, 학습장, 오답 노트 등 한 가지 이상을 활용 하고 있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 문항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 특히 평균에 있어서 500점 이상의 학생들은 3.339를 나타낸 반면에 500점 이하 학생들의 평균은 2.588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인터넷, 단어장, 학습장, 오답 노트 등의 자신들의 계획적인 전략을 지니고 있어 학습의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는 반면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전략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토익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점수에 상관 없이 토익 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움을 줄 친구나, 동아리 활동, 또는 사교육(학원, 온라인 토익강좌, 교육 방송 등)에 대한 참여 의지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토익 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움을 줄 친구가 있거나, 동아리 활동, 또는 사교육(학원, 교육 방송, 온라인 토익 강좌 등)을 하고 있다'라는 문항에서는 500점 이상인 경우 평균은 2.831, 500점 미만의 학생들은 평균 2,735로 두 집단 모두 3점 미만으로 낮았으며, 두 집단 간 차이도 없었다(p=.686). 이로서 토익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성적에 상관 없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토익 수업 이외에 교육 기관이나 그룹 학습 활동 등에는 비적극적임이 나타났다.

6) 토익 능력 향상을 위한 태도

대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위한 마지막 항목은 현재의 토익 점수에서 보다 향상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를 알아 본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항목에서는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며(p=.364), 구체적으로 살펴 본 문항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토익 능력 향상을 위한 태도 결과

문항 번호	집단	빈도 (%)					M	SD	*t*	*p*
		①	②	③	④	⑤				
26	A	0.0	10.8	20.0	52.3	16.9	3.753	.867	.475	.637
	B	2.9	17.6	17.6	35.3	26.5	3.647	1.152		
27	A	4.6	24,6	23.1	40.0	7.7	3,215	1.053	.421	.674
	B	8.8	23.5	26.5	29.4	11.8	3.118	1.175		
28	A	3.1	12.5	20.3	53.1	10.9	3.563	.957	.710	.479
	B	2.9	14.7	41.2	20.6	20.6	3.412	1.076		
29	A	0.0	10.8	35.4	46.2	7.7	3.508	.793	.677	.500
	B	2.9	14.7	38.2	29.4	14.7	3.382	1.015		
30	A	0.0	4.6	16.9	58.5	20.0	3.939	.747	1.047	.300
	B	2.9	5.9	29.4	38.2	23.5	3.735	.994		

*p<.05

위의 표 10에서 보듯, 토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들의 태도를 알아 본 하위 문항 5개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27번 문항만이 평균 3점대 초반일 뿐, 모두 3점 후반의 평균 수치로 토익 점수에 상관 없이 학생들은 토익 점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문항별 결과를 보면, 26번 문항인 '나는 토익 영어 학습량을 현재보다 늘리고자 한다'는 500점 이상의 A 집단의 평균은 3.753, 500점 이하의 B 집단은 3.647로서 두 집단 모두 비교적 높은 평균 치를 나타내었다.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나(p=.637), 토익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성적에 상관 없이 토익의 학습량을 늘리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나는 토익 점수향상을 위하여 동아리 활동이나, 사교육(학원, 온라인 토익 강좌, 교육 방송 등)을 이용하고자 한다'라는 문항에서도 두 집단 간 차이는 없다(p=.674). 토익점수 500점 이상인 집단의 평균은 3,215, 500점 이하 집단의 평균은 3.118으로 토익 능력 향상을 위한 태도 항목 중 낮다. 그러나 이전 토익에 대한 전략 항목 중25번 문항에서 '나는 토익 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움을 줄 친구가 있거나, 동아리 활동, 또는 사교육(학원, 교육 방송, 온라인 토익 강좌 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 질문에서 보인 각각의 평균 2.831, 2.735에서 상승한 것이어서 앞으로 동아리 활동, 또는 사교육(학원, 교육 방송, 온라인 토익 강좌)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나는 토익 듣기 고득점을 위하여 인터넷, CD, MP3 Plalyer, 학습장, 오답 노트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것이다'라고 제시해 보았다. 이에 500점 이상의 학생들은 평균 3.563, 500점 이하의 학생들은 평균 3.412의 결과를 나타내

토익 점수를 높이고자 다양한 방법시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문항 역시 점수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p=.479), 평균 치로 비교해 보면 앞 문항의 동아리 활동이나, 학원, 온라인 토익 강좌, 교육 방송 등의 사교육에 대한 태도보다는 호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9번 문항에는 '앞으로 토익 시험에 자주 응시할 것이다'라고 제시하여 시험에 대한 적극성을 알아 보았다. 이에 500점 이상의 집단 평균은 3.508, 500점 이하의 학생들은 3.382로 유사한 결과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p=.500). 마지막으로 '나는 토익 점수 향상을 위해 계획을 세워, 혹은 목표 점수를 설정하고 공부할 것이다'라고 향후 토익 학습에 대한 계획과 목표에 대해 물어 보았다. 이 문항에서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p=.300). 그러나 평균을 보면 500점 이상 학생들은 3.939, 500점 이하의 학생들의 평균도 3.735로 토익 능력 향상을 위한 태도 중에서 가장 높은 문항 평균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토익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점수에 상관 없이 앞으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토익을 준비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 교양영어 과목으로 토익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고 토익 수험자인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효과적인 토익 수업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보다 유의미한 결론 도출을 위하여 토익 성적 500점 이상과 이하의 집단으로 나누어 토익 시험에 대한 인식, 토익과 영어 능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토익에 대한 관심, 토익 학습에 대한 자기평가, 토익 학습에 대한 전략, 마지막으로 토익 능력 향상을 위한 태도에서 성적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토익 시험에 대한 인식과 토익에 대한 관심, 토익 학습에 대한 자기 평가, 그리고 토익에 대한 전략 등에서 성적간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토익과 영어 능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토익 능력 향상을 위한 태도에서는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성적에 따라 토익 수업을 듣는 목적부터 달랐다. 토익에 대한 인식에서 토익을 공부하는 목적을 묻자 500점 미만의 학생의 경우는 졸업인증제 통과가 수강의 주 목적이라고 하였으나, 토익 500점 이상의 중·상위 학생들은 자신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토익 수업 수강을 수강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토익 수업에서 바라는 학생들의 궁극의 목표는 성적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토익이 자신의 미래에 중요하며, 토익 강의 수강은 취업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토익을 대학과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려는 도구적 동기로 보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이전 연구(성창섭, 2012; 이동명, 홍관희와 황규홍, 2013; 지순정, 2011)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신동일과 김주연(2012)은 토익이 단순히 졸업과 취업을 위한 도구적 맥락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을 책임지는 대학으로서는 토익이 성공을 위한 수단만으로 변질되는 것은 우려할만하나, 본 연구를 통해 일단 졸업 인증제가 중하위권 학생들의 토익 점수 향상에는 순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특히 토익 점수가 낮은 학생들에게는 교양영어로서 토익 수업을 영어 능력과 토익 능력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과정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학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입학 전이라도 영어 기초 학습을 위한 비교과 수업 제공으로 영어 기반을 다지고, 재학 시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하는 심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 토익은 본래의 출제 의도와 목적에 맞게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영어의 능력을 향상시켜 능력 있는 영어 사용자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학생들은 성적에 상관 없이 토익이 영어능력을 향상 시킨다고 답하였으며, 이 같은 결과는 지순정(2011)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그녀는 대학생들이 토익 성향 분석을 통해 82%의 학생들이 토익을 공부하면서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다라는 답을 하였으며, 토익을 공부함으로써 영어 듣기와 읽기에 향상을 이룰 수 있으며, 특히 어휘와 영문법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인식이 강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토익 점수와 실제 영어 능력과의 관계를 물은 질문에서 토익 점수가 실제 자신의 영어 능력은 아니다 라고 한 그들의 응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정경화(2016)의 토익과 테스트 테이킹 기술(test-taking skills)에 급급한 사교육 기관의 폐혜와 토익이 기본 역량의 수준에서 학습되지 않고 ‘시험응시전략’ 수준으로 토익을 준비하여 성적만을 극대화하려는 풍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 신동일과 김주연(2012)의 언급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원한다. 따라서 토익 수업 시간이 토익 전략 학습 시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실제 영어 능숙도를 판정 받는 준비의 시간이 되도록 하는 교육적 책임과 실행이 필요하다.

한편, 토익에 대한 관심은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관심도 높은 비례적 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토익 수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토익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토익 수업에도 비 적극적이며, 토익이 교양 영어의 필수 과목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태도는 수업 이전에 형성된 배경과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토익 배경을 조사한 결과, 토익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토익 학습 시작 시기도 늦고, 토익 시험을 치른 경험도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토익 고득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야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학생들은 점수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모두 자신들의 토익 점수를 마음에 두고 유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특히 점수가 낮은 학생들에게는 영어 기초 학습과 함께 토익 시험에 자주 응시하여 향상된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독려가 필요하다. 특정 언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은 학습자의 노력 지속성에 높은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한 Flavell(1987)의 조언은 토익 학습에도 유용하다.

또한, 토익 학습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서 학생들은 성적에 상관 없이 모두 토익 읽기와 문법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토익 점수 500점 미만의 학생들은 500점 이상의 학생에 비해 듣기 학습과 어휘 학습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익 고득점을 위해서는 청해에 집중한 수업을 할 필요가 있으며(신광인과 오치성 2102), 특히 초급자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청해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을 주장한 박현숙과 최미옥(2014)의 제언은 고려할 만하다. 토익 관련 문법의 경우도 학생들은 성적에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문법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다. 대학생들의 문법 학습에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인식은 선행 연구에서도 있어 온 바(남은희, 2012; 신희재, 2011; 정숙경, 2008), 문법 학습은 강조되어야 한다. 다만 성적에 상관 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토익의 학습 효과는 단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토로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학기 별 개설되는 단기프로그램에 더해 진급 가능한 단계적 프로그램 개설로 보다 장기적이며 다양한 수업이 요구된다.

영어학습 전략은 대학생들의 토익 성적 변화에 유의미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정병삼, 2011).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토익을 위한 자신만의 전략이 있다고 밝혀 점수가 낮은 학생들에 비해 전략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인터넷, 단어장, 학습장, 오답 노트 등의 자신들의 전략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는 반면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이러한 학습 전략에 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토익 시험에서 자신의 약점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위의 학습 방법을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토익 목적에 맞는 전략적인 수험자가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토익 능력 향상을 위한 태도가 성적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은 성적과 관련 없이 토익 점수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계획을 세워, 혹은 목표 점수를 설정하고 공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동아리 활동이나, 사교육(학원, 온라인 토익 강좌, 교육 방송 등) 이용에는 비 적극적이었으며, 학교에서의 토익 수업 이외의 타 교육 기관이나 타 경로를 통한 학습에는 앞으로도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그들이 참여하는 대학 교양 영어로서의 토익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존도는 매우 높고 중요성 또한 크다 하겠다.

토익은 시험이기 이전에 영어이다(신동일과 김주연 2012). 10년 만에 올해 개정된 신 토익은 효율성과 실무 영어능력 평가 강화를 위한 변형된 문제유형

의 출제가 핵심이며, 유형별로 정답을 찍거나 공식을 기계식 문제가 아니라 암기하는 진짜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문맥을 알아야 하는 유형이 출제돼 풍부한 어휘력이 요구된다(김병덕, 2016). 이처럼 토익의 새로운 유형이 도입되면 실제 시험을 치르는 학생뿐만 아니라, 토익 수업에도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으로서의 토익은 단순히 점수 향상에 급급하기보다는 학생들이 토익을 준비하면서 쌓은 노력이 실제 영어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대학의 지원과 교수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권선희. (2012).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 교육과정 구성 및 학습자 인식도 분석을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18*(4), 211-235.

교육과학기술부. (2013). *2014 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기본계획(안)*. 서울: 교육부.

김경필. (2016년, 2월 2일). 한국에선 열풍 "토익 바뀌기 전 점수따자" 학원·시험장 북새통. *조선일보*. p.11.

김병덕. (2016년, 5월 17일). 10년 만에 바뀌는 토익 새로운 유형, 난이도는 유지. *파이낸셜뉴스,* 월드와이드웹 http://www.fnnews.com/news/201605171043509074에서 2016년 6월 2일에 검색했음.

김혜경. (2013). 교실 외 스터디그룹 활동이 토익 독해와 어휘학습 및 학습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교육, 14*(2), 237-257.

남은희. (2012). 읽기 활동과 동기 분석을 통해 본 효과적인 대학 교양영어 읽기 수업. *현대영어교육, 13*(1). 281-301.

박지영, 오준일, 이인규. (2012). 대학의 수준별 토익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24*(3),257-276.

박현숙, 최미옥. (2014). 대학생을 위한 단기 집중 영어캠프가 토익점수 향상에 미치는 효과. *언어학연구, 30*, 149-166.

성창섭. (2012).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TOEIC 응시에 대한 인식 연구. *언어과학, 19*(1), 119-130.

송은혜. (2013). 스마트폰 토익 앱을 이용한 토익 학습이 EFL 대학생들의 토익점수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과교육, 12*(3), 49-67.

신광인, 오치성. (2012). 대학교양필수과목으로서의 토익수업의 효과. *언어학연구, 24*, 125-137.

신동일, 김주연. (2012). 토익 수험자의 인식 연구-비판적 언어평가론 관점에서. *영어영문학21, 25*(2), 125-157.

신희재. (2011). 교양영어 프로그램에서 영문법교육의 필요성: 학습자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12*(1), 157-176.

오희정. (2012). 자기효능감과 토익 성취도의 관계. *영어교육연구, 24*(3), 299-319.

이동명, 홍광희, 황규홍 (2013). 한국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토익 응시에 대한 반응연구. *새한영어영문학, 55*(2), 233-248.

이명관. (2015).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대학생들의 토익수업 효과. *영어어문교육, 21*(4), 257-281.

이인규. (2014). 대학의 TOEIC 수준별 수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언어학, 21*(4), 149-166.

전은실, 홍진주. (2014). 대학 교양과목 온라인 토익 연구. *언어학연구, 32*, 255-276.

정경화. (2016년 8월 17일). 헷갈릴 땐 과거분사, 찍기 가르치는 토익 학원. *조선일보*, p. 14.

정병삼. (2011). 영어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 토익성적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 *교육평가연구, 24*(2), 377-399.

정숙경. (2008). 대학 영어독해 수업의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위한 행동 연구. *영어교육연구, 20*(2), 243-272.

정행. (2010). 개정된 토익이 한국대학생들의 영어 교수 학습에 미치는 역류효과. *영어영문학21, 23*(3), 183-207.

지순정. (2011). 대학생들의 토익 성향 분석, *인제 논총, 26*(1), 387-414.

지순정, 이상도. (2009). 토익 점수분석에 따른 청해력과 독해력의 상관관계.*언어과학, 16*(1), 111-128.

천효정.(2016년,2월 14일). 바뀌기 전 점수 따자, 토익 열풍에 청년층 부담만 가중. *KBS News,* 월드와이드웹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31858에서 7월 12일에 검색했음.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2nd Ed.).*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Byun, Gil-Ja & Kim, Won-Bo (2015). Analysis and evaluation of a TOEIC textbook : Focusing on grammar and vocabulary question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1*(4), 1-16.

Flavell, J. (1987).Speculations about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metacognition. In F. E. Weinert & R. H. Kluwe (Eds.), *Metacognition, motivation and understanding* (pp. 21-29).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Lee, Yoo-Jean (2015). Breadth and depth of vocabulary learning: Which is better for improving TOEIC listening and reading?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4*(3), 1-28.

예시언어(Examples in): Korean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Tertiary

남은희
한경대학교 교양학부
17579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Email: hieuni@hanmail.net

Received in October 15th, 2016
Reviewed in November 26th, 2016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5th, 2016